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윤방부



필자가 제일 싫어하는 글은 마치 수도사 같고, 설교투의 글이다. 참으로 역겹게 느끼는 것 중의 하나다. 그러나 이번 글은 바로 이런 류의 칼럼이어서 독자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그러나 한번쯤은 이해하기를 바라...

라져 버린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때를 가리켜 '모두 다 사라진 것이 아닌 달'이라고 부른다니 참 재미있다. 우리는 해가 바뀔 때가 되면, 지난 일년의 시간이 다 지나가버렸다고 생각한다.

해가 바뀔 때면 드는 생각

이미 흘러간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과거가 모두 지나가 버렸다고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시간은 정말 그저 흘러가 버리기만 하는 것일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 시간은 분명 무언가를 남기고 간다. 아름다운 추억, 슬픈 기억, 아쉬움, 새로운 희망을 뿌려놓고 간다. 오늘이 없는 내일이 없듯이, 지난 일년의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없다면 다가 올 새해의 꿈도 없는 것이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11월을 '모두 다 사라진 것이 아닌 달'이라고 부른다. 11월이면 나뭇잎도 떨어지고 싱싱하던 자연의 모든 생명 현상들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

는 우리들의 자세도 좀 더 겸허해지면 좋겠다.

언제부턴가 나는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계획이나 희망을 세우기 전에 현재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먼저 돌아보게 된다. 한때는 나도 현재의 나를 돌아보기 전에 내일의 나를 꿈꾸는 일에 바빴다. '새해에는 이런 일을 해야지', '새해에는 꼭 이걸 이루어야겠다' 등등 무언가는 채우고, 더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러다 보니, 현재 내가 가진 것보다 앞으로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눈에 더 띄었다. 집도 팔

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승진도 해야 하고 자꾸만 내게 부족한 것들을 먼저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일보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아끼고 살아가는 일이 더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은 해가 바뀔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본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나 많이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았을까? 지금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버려할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곰곰이 하다 보면 떠오르는 새해의 태양 앞에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욕심이 부끄러워질

때도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간다. GAMZU YAVOR - This too shall pass!

벌써 2009년도 지나가는구나! 새옹지마 - 새처럼 웅크려져 지달하지 마라!

Spero Spera - 숨 쉬는 한 희망은 있다! 이해진 시인의 "한 해를 뒤로 보내며" 몇 구절을 옮기며,

한 해를 뒤로 보내며 / 이해진 우리가 가장 믿어야 할 이들의/ 무책임과 불성실과 끝없는 욕심으로/집이 무너지고 마음마저 무너져 슬퍼했던 한 해~/한 해의 마지막 달인/12월의 달력을 바라보는 제 마음에/초조하고 불안한 그림자가 덮쳐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은 실천했나요?/사랑과 기도의 삶은 뿌리를 내렸나요?/감사를 잊고 살진 않았나요?/남에게 좋은 말도 많이 하고/더러는 좋은 일도 했지만~/바쁜 것을 핑계로/일상의 기쁨들을 놓치고 살며~/혼자서도 얼굴을 붉히는 제게/조금만 더 용기를 주십시오/다시 시작할 지혜를 주십시오.

한 해를 돌아보는 길 위에서/저녁놀을 바라보는 겸허함으로...

(기천의과학대학교 부총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시·전남도 재정 효율성 더 높여야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재정의 수익성과 효율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계감사원과 감사원이 조사한 지난 2007~2008년 지방재정에 따르면 광주시의 순자산 증가율은 10.51%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의 3.29%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광주시 재정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이다. 전남도 역시 2.76%로 평균을 밑돌았으나 8위로 중위권을 유지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주민 1인당 총자산은 광주가 1천51만3천300원으로 5위, 전남은 955만800원으로 8위를 차지했다. 재정 건전성 역시 열악한 지역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선전했다는 평가다.

양 시도의 재정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효율성과 부채규모, 수익성 등은 좀더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 경우 주민 1인당 총수익이 전국 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166만 5천원에 불과했다. 전남도는 주민 1인당 자체 조달수익이 31만9천400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주민 1인당 수익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이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광주시의 재무 관련 지표도 유의해야 한다. 주민 1인당 총부채가 전국 평균(50만1천원)을 초과한 70만5천300원으로, 자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전남도는 총수익 대비 인건비·운영비 비율, 사회보장 지원금 비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모든 부문에서 열악하다. 재정상태는 주민의 소득과 비례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주민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거꾸로 가는가

깨끗한 정치 구현을 위해 만들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히려 정치관계법을 개정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받은 정치인이 30일 이내에 자진 반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고,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도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법조항을 만들겠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2004년 불법 대선자금 파동 와중에서 만들어진 이른바 '오세훈 법'이 모태다. 만연했던 정치권 비리·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장치였다.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 일부 조항이 비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현실을 외면한 지나친 규제는 풀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자금의 모금과정과 사용처가 분명해야 하고 정치자금에 관한 정치인들의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물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불법 자금을 받았다가 한 달 내에 다시 돌려주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독소 조항이다. 더욱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정치권의 검은 돈 거래를 처벌하는 조항을 풀겠다는 이가 없는 노릇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 역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기초자치 선거에 중앙 정치가 개입하면서 솔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중앙당이 시장·군수 공천권을 거머쥐고 있는 것은 쟁쟁한 민주주의 정착과도 거리가 멀다.

정치개혁특별위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정치인들의 불법·탈법·부정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다. 파렴치한 비리 정치인을 퇴출시키려면 불법자금 수수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마땅하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제 역시 다시 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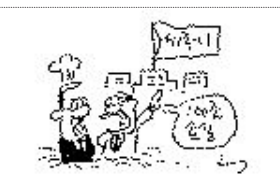
無等鼓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경제성장률 5% 달성, 코스피 지수 2000... 요즘 정부나 관련 연구기관들이 쏟아내고 있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다. 아직 금융위기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다는 경고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국민은 내년에는 나아질 것이라 믿는다. 그것이 숫자와 통계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조원의 손해가 난다고 했다. 5년 전 재정경제부가 178조원의 이득이 예상된다

다.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걸까. 한국개발연구원은 영리법인 도입 논리를 세우기 위해 해 숫자를 동원했을 것이고, 보건산업진흥원은 반대 논리를 만들려고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할 것 같다. 이들 중 누군가는 선의의 목적을 위해서라는 숫자가 조작해

'숫자의 난세'



다.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걸까. 한국개발연구원은 영리법인 도입 논리를 세우기 위해 해 숫자를 동원했을 것이고, 보건산업진흥원은 반대 논리를 만들려고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할 것 같다. 이들 중 누군가는 선의의 목적을 위해서라는 숫자가 조작해

다.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걸까. 한국개발연구원은 영리법인 도입 논리를 세우기 위해 해 숫자를 동원했을 것이고, 보건산업진흥원은 반대 논리를 만들려고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할 것 같다. 이들 중 누군가는 선의의 목적을 위해서라는 숫자가 조작해

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100

기고

장태수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의 주제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자원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활동)'이다. 각종 국제기구, 관련단체 및 국가들은 그간 바다와 연안이 처한 심각한 상황이 세계적 제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속적으로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숨 쉬는 바다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강을 정비하고 있다.

량이 많은 남해서부지역까지 점차 확대·증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어획량이 급감하는 등 어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1971년부터 투입하기 시작한 콘크리트 인공어초는 석회질(탄산칼슘, CaCO3)이 많이 발생하여 무질석 회조류가 증가함으로써 해조류 조성이 도용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해조류의 성장에 유용한 물질인 철분을 용출하는 철강슬래그를 이용한 인공어초를 투입하여 해조류가 풍부한 해역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살아있는 바다 만들기

1981년 12월 23일 1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에서 여수시 돌산면에 이르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다. 그중 해상면적은 육지면적의 약 10배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거의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에서 여수시 돌산면에 이르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다. 그중 해상면적은 육지면적의 약 10배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거의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에서 여수시 돌산면에 이르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다. 그중 해상면적은 육지면적의 약 10배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거의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에서 여수시 돌산면에 이르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다. 그중 해상면적은 육지면적의 약 10배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거의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수온상승과 바다오염으로 인해 무질석회조류가 증가(갯녹음 현상)하여 해조림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바다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온상승과 바다오염으로 인해 무질석회조류가 증가(갯녹음 현상)하여 해조림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바다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갯녹음 현상은 제주도를 비롯한 동해안 생태계 및 해조류 생산

이와 같은 갯녹음 현상은 제주도를 비롯한 동해안 생태계 및 해조류 생산

인터넷 가학성 동영상, 청소년 인성에 치명적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한 동영상을 클릭하게 되었다.

이런 가학성 동영상은 인터넷에 적잖이 올라온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조회 수를 높이려고 최대한 자극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한 아이가 10대로 보이는 동네 꼬마들에게 자신의 등을 빌려줘서 뽀뽀기를 시켰다.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졸지어서 순서대로 뽀뽀기를 하는데 마지막 아이가 뽀뽀기를 할 때 이 소년은 갑자기 몸을 숙여버리며 울크렸다.

인터넷의 매체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는 인성교육은 정말 마비상태인지 모르겠다.

결과, 어린 아이는 손 짚을 데가 없어져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진 채 나뭇그늘아래 있었다. 그 장면을 본 다른 아이들은 배를 쥐고 깔깔대며 땅바닥에 나뭇그늘아래 통증을 호소하는 아이를 가리키며 놀려댔다.

우리나라 청소년 교육이 아무리 입시 위주로 돼 있고 인성 교육은 소홀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남과 공존하는 법을 가르치는 인성 교육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닐까.

▲문성희·목포시 추후동

의료 칼럼



신삼식

주위에서 가끔 얼굴이나 몸에 붉은 반점이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 요즘은 치료가 발달해서 얼른 치료를 권하고 싶은데 결례가 될까봐 못 본 척한다. 한 자들에게 치료 여부를 물으면 선천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그냥 지니고 산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치료를 하고 싶어도 적당한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얼굴의 한쪽이 포도주색으로 붉은 반점이 있는 경우를 화염상모반이라고 한다. 태어날 때부터 있는 붉은 반점으로 처음에는 만져지지 않다가 아이가 점차 커가면서 병변이 그만큼 넓어지고, 돌출되면서 짙어지는 경향이 있다. 생후 40대까지는 계속 번지는데 대부분 얼굴과 목에 흔하며 얼굴의 눈 주위를 발생해 몸의 측면에 발생한다. 이는 저절로 호전되지는 않는 모세혈관 기형이다. 치료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다리와

붉은 반점

안면홍조, 모세혈관확장이나 다리의 정맥류, 실핏줄 등이 있다.

몸에 생긴 경우는 나이가 들어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15세 전후까지 늦출 수 있지만 사춘기 이후에는 두꺼워지므로 치료가 힘들다. 치료간격은 6주에서 2달 간격으로 병변에 따라 다르지만 10회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 일반 혈관질환은 시너지나 브이빔과 같은 혈관 레이저와 긴 파장의 1064 ND-YAG, 혈관경화요법, 수술요법이 있다.

특히 태어나면서 붉은 꽃 모양으로 붉은 혈관종이 생긴 경우 부모의 걱정이 크다. 이런 붉은점을 팔기 혈관종이라 부르는데, 다행히 자연치유가 잘된다. 보통 신생아의 10% 정도에서 발생하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미숙아, 여자아이에서 발생률이 높다.

겨울철이 되면 쉽게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홍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선천적으로나 여러 가지 후천적인 영향으로 혈관이 수축, 팽창하는 기능을 잘하지 못하고 늘어진 상태로 지속돼 생기는 증상이다. 이미 늘어난 혈관은 저절로 호전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레이저 시술을 받아줌으로써 호전이 가능하다.

혈관종이 있을 때 계약이나 상처가 나는 경우 흉터가 남는다. 또 입술, 성기 부위, 너무 빨리 크게 자란 경우에는 성장 멈추게 하는 치료와 색소레이저 치료를 서둘러야한다. 혈관병변의 치료는 혈관레이저가 들어가는 깊이에 따라 시너지나 브이빔과 같은 혈관 레이저와 긴 파장의 1064 ND-YAG, 혈관경화요법, 수술요법이 있다.

시술간격은 일반적으로 1개월 간격으로 5회 이상 시술하게 되며 개인차에 따라서 시술간격이나 횟수가 다르고 효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통 시술 후 바로 세안이나 화장이 가능하므로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

혈관종의 치료 시기는 혈관종이 성장하기 전에 빠를수록 좋다. 치료방법은 너무 크거나 기능이 심각한 훼손된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하고, 작은 혈관종의 경우 2주 간격으로 스테로이드제 국소 주사를 하지만, 대부분 레이저치료를 한다. 자연치유 후에도 흉터가 남게 되는데 남은 흔적은 혈관레이저나 레이저 박과,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갯녹음 현상은 제주도를 비롯한 동해안 생태계 및 해조류 생산

'인삼 가공식품' 국제대회 수상...인삼농가에 희소식

며칠 전에 모스크바에서는 국제발명 투자 전시회라는 게 열렸는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약효가 증강된 가공 인삼제품'을 출품해서 금상과 은상을 받았다는 보도를 접했다. 또한 이러한 지원재단이 주는 특별상까지 수상했다고 한다. 인삼은 잘 알려져 왔지만 그 특유의 고른 약효로 인해 순환기, 면역체계, 중추신경계에 부인과 분야까지 골고루 약효를 퍼뜨려 주기 때문에 동서고금 남녀노소에 최고의 약재로 쓰인다.

인삼은 충남 금산이나 풍기의 인삼만 유명한 게 아니라 우리 전라도 지역에서도 진안, 화순, 순천의 인삼은 조선시대부터 유명한 특산품이었다. 그러므로 인삼농가나 정부가 힘을 합쳐 이번 같은 국제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을 다시금 더 홍보하고, 인삼농가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해서 자부심도 느끼게 하고, 아울러 더 질 좋은 우리 인삼을 생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은숙·광주시 서구 광천동

Table with publication details for Kwangju Ilbo,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